

사회

돈에 눈먼 보험사기 의사들

작년 이후 광주·전남 11명 입건... 도덕성 추락 심각

허위진단서·입원일 부풀려 부당이익 동조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사건으로 의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의사들이 허위진단서를 남발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방조하고, 환자들의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의료계정을 추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크고 작은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광주·전남지역 의사만도 줄잡아 수십여명에 달한다.

◇줄지 않는 보험사기의 '유혹' = 광주시 모 신경외과 원장인 임모(59)씨는 전직 보험설계사인 송모(여·68)씨에게 허위입원서를 발급, 송씨가 집중 가입한 보장성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송씨의 아들, 딸 등 일가족은 허위입원서를 보험사에 제시하고 1일 3만~6만원의 입원비를 받는 등 모두 3억6000여만원을 타냈다.

지난 5월 16일에는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금을 챙겨온 여수 모 의원 의사 최모(40)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0개월간 여수 문수동에 모 의원을 운영하면서 박모(여·32)씨 등 30여 명의 인적사항을 빼돌린 뒤 이들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급, 100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은 총 317건으로 813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의사는 11명으로 파악됐다.

◇고질적인 병원-환자 유착=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이 병·의원의 누적

된 적자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금 지급제도의 허점을 꿰고 있는 보험 설계사나 병원 사무장의 범행 공모와 환자와의 유착, 의사들의 의료계정을 추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크고 작은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광주·전남지역 의사만도 줄잡아 수십여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영년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의도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그 폐해

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병원의 한 사무장은 "솔직히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비와 입원비가 지불된다면, 그 돈이 환자 돈이든 보험사 돈이든 상관 안한다"며 "경영난 앞에서 윤리 따위가 무의미해지지 이미 오래"라고 말했다.

광주 신경외과 병원의 한 의사는 "환자들이나 보험 설계사 등의 지시에 따라 서류 번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문제를 알고도 어러운 병원 형편상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숨방망이 처벌 개선해야=의사 또는 병원 직원의 보험사기행위가 적발된 후에도 숨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점 역시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로 드러난 수백건의 보험사기 사건은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최근 인터넷으로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단이 등장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법원의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빗길 전진주 "꽂"

장맛비가 내린 10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용산터널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향하던 남구청소년수련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진주를 들이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플랜트 노조조합비 정치자금으로

김선동의원에 준 혐의 선관위, 검찰에 고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4·11 총선 직전 조합비 1000만원을 통합진보당 후보 측에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 전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윤모씨(50)와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 마모씨(46)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씨는 지난 총선 때 통합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았지만 당선되지는 못했다.

검찰은 광양시선관위에서 플랜트 건설노조가 당시 통합당 국회의원 순천·곡성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선동 의원과, 광양지역구 유원주 후보(낙선)측에 선거비용으로 쓰도록 조합비를 제공한 정황을 잡고 고발해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광양지역 플랜트 건설노조 지부를 압수수색하고 노조 간부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 자금이 김 의원과 유 후보에게 직접 유입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고참이 레이저 빔 쏘 시신경 손상

"아들 군사 가혹행위 당했다" 주장에 수사

전북 35사단 한 부대에서 고참병이 후임병에게 플래시용 레이저 빔을 쏘 시신경을 손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아들 조모군을 군에 보낸 주부 최모(49·군산 수송동)씨는 "아들이 지난 4월 초 내무부에서 선 임병들에 의해 플래시용 레이저 빔을 수차례 쏘이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이후 아들에게 우측 눈의 급격한 시력 저하와 함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병인 조군은 최근 서울 한 병원에서 '우안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안과 전문의는 "신경조

직 자체가 꽤 손상을 입었다. 20초 정도 쏘인 레이저 포인터 빔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고 가족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35사단 관계자는 "최근 가족들의 주장이 있어 당시의 선임병을 조사한 결과 2~3차례 조 군에게 레이저포인트 빔을 쏘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하지만 레이저 빔의 영향과 피해범위가 애매해 현재 정부 연구기관에 성능감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선임병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위험 운전 범칙금 냈어도 면소는 잘못"

대법원, 처벌해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폭기 등 협박)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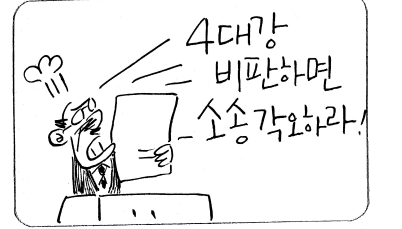
재판부는 "이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원을 냈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

을 쥐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을 승용차로 주행하면서 도로 진입 때 양보해주지 않은 데 항의하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나원침 (8606) 김종두



학교 운동장서 교통사고 합의 상관없이 형사처벌

학교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지만 정작 학교 운동장은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상다발

경찰 간부가 술 마시다 여성 폭행

○"담양경찰서의 한 간부가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10일 광주서부경찰은 A(여·50)씨가 9일 새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자리를 함께 한 담양경찰서 Y과장에게 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중."

○"Y과장은 경찰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팔뚝을 잡아끈 것밖에 없다"고 진술."/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원전 비리' 한수원 간부·업자 31명 구속

영광원전 팀장 포함

원전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수력원자력 처장급 2명을 포함해 간부 22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공기업 간부들이 뇌물을 받아 챙기다가 20여명이 무더기로 구속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수원 1급인 김모(55) 관리처장, 이모(52) 경영지원센터 처장을 포함해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영광원전 정모(52) 팀장을 비롯해 지역원전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

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수원 간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원전 로비스트와 납품업체 관계자 9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수원 본사 김 처장은 업체로부터 한수원 납품업체 등록과 수주 편의제

공 명목으로 7000만원을 수수하고 이 처장은 1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리원전의 허모 씨는 지난 2009년 외국회사의 '밀봉유닛' 원재품을 몰래 빼내주고 이 업체가 만든 '짜퐁' 부품을 다시 납품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8000만원을 받았으며, 영광원전의 정모 팀장도 같은 부품을 납품받아주고 1억원을 받아 각각 구속기소됐다.

/유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광주광역시 지정 교육기관 : 광주-2008-제001호 ▶

2012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자격증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성실과 사랑으로 노인을 섬기고자 하는 모두(연령무 관용가능)

① 교육일정 : 2012년 8월 초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18:00-22:50

② 교육비 : 150,000원

③ 모집인원 : 40명(★ 교육비 등록순으로 선착순 마감)

- 사회복지사 :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간 호 사 : 3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④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만 해당)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자격증사본 1부(자격자만 해당) - 사진 2매

★교육 후 국가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2-2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2년 9월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수 강 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 5,000원

:: 해 택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 (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담학, 심리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 인격을 연마하는데 목적이 있음.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문의전화 062) 605-1112, 1063 / F. 062) 572-0264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